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수도권 여름연수

경숙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 노래

· 전통음악의 이해를 바탕으로 ·

일 시 : 2000년 7월 22일 이른 10시-늦은 6시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275-8505 / FAX 2275-8506 / 천리안 · 나우누리 ID KDTA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남자인든 여자인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건 환경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 놀이를 할 권리, 옷 버릴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놀 권리가 있다.

● 글 차 례 ●

인사말	-----	서은희/
축사	-----	이윤경·이기원/
특별강연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	민하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주제강연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이 어르는 소리-----	문재현/
		(마을수준교육과정연구소 소장)
전래노래실제	---함께 배워보는 우리 전래동요 종다~~	---마을수준 교육과정 연구소 연구원 및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연구팀/
지부소개(서울·인천)	-----	/

● 일 정 표 ●

9 : 30 ~ 10 : 00	접수
10 : 00 ~ 12 : 00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민하영)
12 : 00 ~ 1 : 00	점심식사
1 : 00 ~ 3 : 00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이 어르는 소리(문재현)
3 : 00 ~ 3 : 30	휴식
3 : 30 ~ 5 : 30	함께 배워보는 우리 전래동요 종다~~ (마을수준 교육과정 연구소 연구원 및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연구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연수이고 싶습니다

서은희 (한국보육교사회 부회장/ 교육연구팀장)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입니다. 7월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비, 바다, 햇볕, 휴가 등이 떠오르나요?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회 집행부는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 지 아십니까? 아, 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7월 하면 여름연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답니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재충전, 재교육을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가하는 연수이니 만큼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정말 유익한 연수가 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부, 지회와 중앙의 교육연구팀이 이번 연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보육교사회는 우리의 전통육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현장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주로 개별 교사나 개별 어린이집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 초 보육교사회는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의 내용을 연구하고, 전체 보육교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마을수준 교육과정연구소' 소장님인 문재현선생님과 함께 하는 교육연구팀이 만들어져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연수도 이런 맥락 속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연수의 주제는 '전통육아의 이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노래'입니다. 작년의 연수 주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작년 연수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심화 과정에 드디어 외부 강사가 아닌 우리 보육교사회 회원들이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고 웬 호들갑이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보육의 한 주체인 교사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하는 우리 문화의 한 영역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체로 선다는 것은 보육현장에서의 전통문화, 전통육아가 유행처럼 왔다가는 한 바람이 아니라 보육의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강의 청탁을 기꺼운 마음으로 수락해 주신 민하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보육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육아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청주에서 멀다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열성적으로 교육연구팀을 이끌어 주시고, 이번 강의도 맡아 주신 문재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대를 갖고 참가하는 교육이나 연수 뒤에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 연수도 주최하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 다음 연수 때 꼭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연수를 통해 배우게 된 것, 느끼게 된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전통육아, 우리의 옛 노래에 한 번 꼭 빠져볼까요? 준비되었지요?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공동대표)

한국보육교사회 수도권 여름연수를 축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 노래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년 보육교사를 위한 여름연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학자의 책갈피나 강단에서만 울려 퍼지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보육교사의 입맛에 꼭 맞으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 내용과 형식을 준비하기 위해 늘 고민하는 보육교사회의 회원과 일꾼들이 있기에 이번 연수도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보육교사회의 연수가 다소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 교사들의 요구와 고민이 담겨 있는 연수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작년에 이어 우리 문화와 전통을 보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준비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연수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현장에서 정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우리문화의 향기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해가 거듭 될 때마다 더욱 알차게 성장하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원(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 환경의 시대가 온다고들 합니다.

문화의 시대에선 각 나라별, 지역별 고유의 문화를 살리고 보존하는 시대가 오겠고, 환경의 시대엔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가 지금보다도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꼭 어떤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문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항시 고민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실제 7,8월이 되면 보수교육, 승급교육, 여름연수 등 각종 교육일정과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선택하여야만 할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옛노래, 놀이 등 전통을 주제로 한 유아교육활동에 대한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올해의 여름연수는 어느해 보다 설렘과 열기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도가 넘치거나 혹은 보육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별 준비주체가 모여 몇 년간 실시되어온 전래교육활동에 대해 열띤 토론하고 차근 차근 준비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름 연수장 만큼의 화려함이나 거대함은 없겠지만 매 시간 시간 마다의 강사님과 여름 연수준비팀의 땀과 정성으로 어우러진 여름 연수에 한몫이 되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민 하영 선생님, 마을수준 교육실현을 위해 정말 바쁘게 뛰시는 문 재현 선생님, 그리고 이번 연수준비를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저녁마다 모여 준비해 주신 교육연구팀과 수도권 준비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운 여름날씨에도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함께 일궈나가는 보육교사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

민 하 영(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방식이나 교육을 오늘의 영유아 보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오늘의 영유아 보육 현장에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방식이나 교육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유안진과 민하영(2000)의 세대간 양육 풍속의 차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과학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지향하는 신세대의 젊은 어머니들이 한국 전통사회내 양육 풍속을 전승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영유아에 대한 보살핌과 교육이 한국 전통사회의 양육 가치와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양육과 교육: Educare)이 한국 전통사회의 양육 가치와 연결되어 응용될 때, 배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은 농업경제의 유교 문화안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경제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은 농업경제의 유교문화안에서 발전했음에도, 현대 영유아 교육에서 강조하는 발달에 적합한 양육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현대의 보육(육아+교육)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풍속을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과정, 젖아기 시기와 고운 세 살 시기 그리고 미운 일곱 살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과 출산

1. 결혼과 기자속(祈子俗)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가계 계승자이면서 가족 세력의 적극적 확대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남아 출산을 매우 가치롭게 여겼기 때문에, 출산 전 풍속은 자녀 출산보다 다남 출산을 기원하는 방향에서 발달되었다. 다남 출산에 대한 열망은 우생학적 결혼관행 뿐 아니라 기자속신을 발달시키는 토대를 제공했다.

(1) 결혼

1) 우생학적 결혼 관행

- 백리밖 결혼---지리적 풍토적 특성에서 기인될 수 있는 열성 유전자끼리의 결합 예방. 양반일수록 통혼권의 범위가 넓고 가격이 높은 양반일수록 100리 이상의 遠婚 지향.
- 동성동본 불혼---부계 혈연에 기인된 열성 유전자끼리의 결합 예방 및 지리적 풍토적 특성에서 기인될 수 있는 열성 유전자끼리의 결합 예방
- 월삼성(越三姓)의 원칙---모계 혈연에 기인된 열성 유전자끼리의 결합 예방. 모계의 성씨를 적어도

3대에 걸쳐 건너 뛰어 결혼하는 관행.

2) 여상법(女相法) 발달

多産, 多男의 상을 타고난 신부감을 발견하는 풍속. 무자상과 다남형의 신부감을 가려내는 풍속

(2) 祈子俗信 발달

가계계승자인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궁극적 효인 동시에 가족세력의 확대, 가족 노동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부부의 발달적 과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발달하였는데 그 중 토속신앙이나 불교와 관련하여 출산력을 얻는 비방이나, 출산력을 방해하거나 감퇴시키는 것을 회피, 기피하는 금기 방법, 기자속(祈子俗)이 발달하였다.

1) 출산력을 얻는 비방

- 달핍마시기
- 달모래 찜질 *상원날 개밥 안주기*
- 다리밟기와 탐돌이 *상원날 개밥 안주기*
- 그네뛰기, 널뛰기 "
- 알터바위에 빌기 *상원날 개밥 안주기*

2) 출산력을 위한 금기

- 上元날 개밥 안주기: 1년 중 달리 가장 밝은 정월 대보름 날(上元) 개에게 먹이를 안주는 풍속이다. 상원날 개에게 밥을 주면 개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그 집 안주인이 마시게 될 달의 힘을 개에게 뺏기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속언 중 '상원날 개밥 줄 계집'이란 어리석고 눈치없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 4월에 닭고기 안먹기: 4월의 닭고기는 절자(絶子)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4월에는 아예 닭을 잡지 않는 계절로 인식되기도 했다.
- 능소화 안심기: 능소화의 기운이 임신을 훼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녀 뿐 아니라 여성 노인도 능소화 나무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 고사리, 토끼 고기, 오리 고기 금기: 출산력을 감퇴시킨다고 여겨졌다.

3) 기자속(祈子俗)

祈子俗이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인간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대상에게 기원하는 습속으로, 인간 이외의 어떤 초능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감동시킴으로써 아들을 얻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속신에 근거하여 발달하였다.

* 주술 기자속 *

주술이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제적 수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것의 대응적 행위이며, 그 기능은 긴장을 해소시키는 고무적인 것으로 인간에게 용기, 위안, 희망을 갖도록 하는 힘을 주는 기능이 있다. 주술의 이러한 기능과 결부되어 음식먹기 기자속, 물품 착용 기자속 등 주술 기자속이 발달하였다. 주술 기자 속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술 기자 속의 기능>

- 남아 출산의 목적에서 발생하는 긴장감 해소
- 남아를 출산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야기시킴
- 주술행동을 함으로써 남아출산에 대한 강박감에서 잠정적 도피를 꾀하거나, 긴장감을 해소시킬 수 있음. 또는 절망적 상태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도 있음.

① 음식먹기 기자속

특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남아출산의 주력을 기원.

- 공구 뜯 물 마시기
- 거꾸로 달린 고추먹기
- 정월 초하룻날 남성의 소변에 담가 둔 3개 달걀을 삶아먹고 솔뚜껑 잡고 일어서기
- 남성 상징과 자손 번창을 의미하는 밤, 대추, 호도 먹기.
- 남문, 동문이 있는 방안에서 함방하기: 남쪽과 동쪽은 양기가 풍성한 곳
- 한약재 복용하기: 성별이 결정되는 임신 2개월 이내에 남아가 되는

한약재를 지어 먹음

- 아들 낳은 이웃 산모의 첫국밥(미역국과 쌀밥)이나 삼칠날의 밥과 미역국 얻어 먹기
- 우물물, 샘물, 폭포물 등 기자수 마시기
- 남근을 상징하는 석불, 망부석, 마애불, 돌미륵 등의 코 갈아 마시기

② 물품착용기자속

특정의 사물이나 상징물을 몸에 지님으로서 남아출산의 주력을 기원.

- 태줄에 아들 3형제라하여 3개의 작은 도끼(은도끼, 금도끼)를 한 줄에 꼬아서 만든 것을 속살에 당도록 차고 다님.

- 부적, 작은 고두쇠, 産家の 아들 낳은 금줄, 아들 낳은 집의 수저나 옷가지, 구슬, 고추, 밤, 호랑이 발톱, 수탉의 꼬리나 성기, 다남한 부인의 개집(피묻은 속옷) 등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나 요 속에 넣어 둬.
- 상가 집에서 초상 때 사용하는 상주의 만장과 만장 꼭지 공포조각을

상주 몰래 찢어서 속곳을 해입거나 속옷에 붙임

③ 주술 일시

복술가나 무당을 통해 길일이라 생각되는 날자, 시간, 기간 등 주술 일시를 택하여 기사를 위한 주술 행동이 시행되었다. 주술 일시는 주로 음력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이월 초하루, 오월 단오, 구월 중구절 중 첫새벽, 첫닭이 울기 전 등이었다. 주술 일시는 보통 損없는 날, 吉한 날로, 태기를 받아 내거나 빌려오기 위한 주술행위가 시행되었다.

- 주술 일시에 낳은 달걀먹기
- 주술 일시날 주은 썰알, 새알 등을 먹기
- 첫새벽에 우물물을 길어 마시기
- 오월 단오날 뜯어온 약쭉, 구월 구일에 말린 구절초 먹기
- 출산가의 삼신상에 놓인 쌀이나 미역, 多産 한 이웃 부인의 옷 훔쳐 오기, 남의 집 조리 남편 베개 밑에 놓아두기

주술행위는 수회 반복해서 시행되었는데, 정월 초하룻날 첫새벽에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태기가 있을 때까지, 또는 100일 49일 7일 동안 계속되기도 하였다.

④ 주술담당자

주술기자의 주 담당자는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부인 자신이거나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등이 있으며, 무당이나 보살, 스님 등도 등장하였다.

* 치성 기사속 *

인간 이외의 초능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선신 또는 선한 신성을 지닌 듯한 대상을 감동시켜(치성), 남아를 출산시키는 습속을 말한다.

① 치성기자의 장소

깨끗한 곳으로 신성이 깃들만한 곳:

절간(대웅전, 칠성각, 석불이 있는 곳, 우물), 巫家, 산, 못, 우물, 샘터, 강이나 바다, 부뚜막, 장독대, 부엌의 물독 있는 곳, 堂집, 서낭당, 선바위, 왕바위, 복바위, 알터바위, 고목아래, 산상봉

② 치성기자의 대상물

- 삼신: 胎神인 동시에 産神으로 아기 점지와 출산을 담당하는 여신.
- 조왕신
- 부처: 사찰의 칠성각이나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 미륵불, 마애불 등
- 칠성각의 칠성신, 산신각의 산신: 부처아닌 민속신으로 불교와 토속신앙

으로 생겨난 치성 기사 대상

- 삼태성, 복두칠성: 무속적 대상
- 산: 깊은 산, 수려한 산
- 바위, 샘터: 선바위, 알터바위, 암바위, 솟바위, 흔들바위 등과 그들 바위 사이에 있는 샘터
- 고목

③ 치성방법

남아를 낳기 바라는 부인, 친정, 또는 시 어머니, 사찰의 스님, 보살 등이 치성의 주체가 되었다. 치성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삼가며, 잡인과 가까이 가지 않으며, 굶은 일 하지 않으며, 초상집이나 환자집 가지 않으며, 타인과 시비를 하지 않으며, 냉수 목욕(머리감거나 손발씻음으로 대응) 등으로 몸과 정신을 정결히 하였다.

* 積德 및 積善 기사속 *

인간 능력 이상의 힘을 지닌 신을 감동시켜 은혜를 입으려는 방법으로, 덕을 쌓고, 선행을 쌓는 積德 및 積善 기사속이 발달하였다. 선한 도움을 줌으로써 덕을 입은 사람의 입을 통해, 도움 준 사람의 복이 벌어지고 그것이 쌓여 신을 감동시키게 되면, 남아 출산의 소원을 신이 들어 준다고 믿었다. 즉 선행이나 덕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통하여 신을 감동시킴으로서 자신의 소원인 남아 출산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積德, 積善의 방법>

- ①. 강물에 다리 놓아 주기(노두놓기): 겨울철에 찬 냇물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물에 다리를 놓아주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리 놓은 사람의 덕을 칭송하고 그의 복을 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지신명이 그에 감복하여 다리 놓아 준 이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논리로 노두놓기가 행해짐.
- ②. 버려진 아이, 고아 키우기: 버림받은 아이를 키우는 선행을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기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음. '개구멍 받이 키우면 동생본다'는 속언 발달함
- ③. 나그네, 거렁뱅이 등에게 적선.

* 기타 기사속 *

- ① 액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버리거나 옮김.
- ② 꿈 사기
- ③ 묘지 이장
- ④ 기자원 담은 여아 아명 짓기: 또섬이

⑤ 여아에 남북 입히기

2. 태교와 출산풍속

인간의 양육은 임신 이전에 부모될 사람의 심신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 전통사회 태교는 임신 이전 부모의 심신 관리에서부터 임신 중 전과정에 걸쳐 엄하게 준수되었다. 한편 합방 시의 부모의 심신 조건과 임신 중 임신부의 심신 상태에 따라 인간의 심신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태교를 중시하였다.

(1) 태 교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전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강조 하였다.

1) 임신속

귀숙일(씨내리기 날)--1년 중 귀하게 될 남아를 임신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날을 받아 부부관계를 하도록 권장되었다.

2) 부성태교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임신과 육아를 부부 공동의 소관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부성태교가 발달하였다. 부성태교는 부성의 역할 수행이며 부성의 도리로 간주(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허준의 동의보감)되었다.

부성태교는 결혼 전이라도 성교육을 통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서당에서는 논어 공부가 끝난 이후 성생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保精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혼 후 건전한 성생활의 권장을 통한 부성태교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성년 관례 후 상투탈막이라는 글귀를 암기시키거나 삼촌집 사랑들이를 통해 결혼을 앞둔 미혼 남성에게 성교육을 시켰는데 이는 부성태교의 실천을 도우려는 사회적 풍속이라 할 수 있다.

< 부성태교의 예 >

① 합방의 기피사항을 지킴

합방의 일시가 태아의 성별과 심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기피해야 할 날과 기피해야 할 시, 기피해야 할 장소 등을 엄격히 제시하였다. 이는 일기의 상태가 정상 기후에서 크게 이탈되었을 때, 또는 합방의 장소가 불안스럽고 평안하지 못할 때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예사롭지 못할 때 심신에 가중되는 불안감과 죄의식 등이 호르몬 분비 등 신체내 분비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합방의 기피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남자는 백 배나 상하고 여자는 병을 얻게

되며, 자식을 낳았다 해도 우둔아, 정신 이상자, 귀머거리, 수족불구자, 애꾸눈, 언청이, 잔병이 많은 자 등이 되기 쉽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합방에 관한 것을 부성태교로 구분하는 것은, 부부의 성생활이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成胎 후의 금욕

임신 후 금욕하거나 別房할 것이 권장되었다. 이러한 권장은 과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임신 초기의 경우, 자궁의 수축이나 출혈로 인하여 수정란이 자궁벽에 충분히 부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임신 초기의 성교는 유산의 위험이 될 수 있다. 한편 임신 중기의 경우 과도한 성생활은 불결한 세균의 침입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말기의 경우 조산의 위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모성태교의 지원

임산부가 태교할 수 있도록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남성인 아버지임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임신부의 정서가 남편에 의해 좌우됨을 고려해 볼 때 모성태교 지원을 부성태교의 한 부분으로 강조한 것은 합리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④ 근신생활

임신 중 실수로 살생하면 태어날 아기가 살생 당한 짐승의 형상을 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등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였다. 한편 적선과 덕행을 행함으로써 태어나는 아이의 복을 기원하였다.

3) 모성태교

모성의 태중교육 10개월은 스승에게 10년 배운 것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다(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① 成胎 후에 가까이 할 것

태아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고위한 기품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늘 가까이 두고 보며 물품의 고귀한 기품이 태아에게 투사되도록 기원하였다. 기원하는 과정에서 임신부의 정서 상태가 맑고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아 역시 평화로운 심성과 깨끗한 성품이 형성된다고 믿었다.

② 임신부가 먹으면 좋은 음식

- 잉어: 단정한 자식을 얻을 수 있음
- 황소의 콩팥과 보리밥: 힘 세고 슬기로운 자식을 얻을 수 있음.
- 가물치: 총명한 자식을 얻을 수 있음.

③ 임신부가 먹지 못할 음식

- 비뚤어진 모양의 과일과 채소
- 벌레 먹은 것
- 냄새가 나쁜 음식
- 개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문어, 낙지, 오징어 등 뼈 없는 고기와 가재, 게 등 뼈가 밖으로 나온 것.
- 부뚜막이나 상 아래 떨어진 음식
-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과일

이러한 금기 음식은 음식성분상의 이유이기 보다 당시 사회의 통념 상, 불결하거나 부정스럽다고 보았던 음식이기 때문에 금기시 된 것으로 보여진다.

④ 임신부가 보거나 들어선 안될 것

- 광대놀이
- 난쟁이, 곱추
- 서러운 울음 소리
- 새나 짐승이 음란한 모습이나 병들고 상한 모습

임신부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보고 듣지 못하게 금하였다.

⑤ 임신부가 삼가 할 행동

- 사람을 해치는 일
-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것
- 도둑질.
- 타인을 헐뜯는 일.
- 입을 비죽거리는 비양거림.
- 손가락질과 발길질

자칫 임신부가 몸을 다칠 위험이 있다고 염려되는 행동, 임신부를 정서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 등을 금함으로서 물리적 위험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⑥ 임신부가 근신할 행동

- 부부가 함께 자지 않기
- 옷을 너무 덥게 입지 말기

- 찬데 앉지 않기
- 우물과 옛 무덤을 보지 않기
- 무거운 것을 들지 않기
- 먹기를 너무 부르게 먹지 말기
- 바람벽에 기대지 말기
- 버티고 있지 말기
- 임신 한 지 여섯 달이 되었으며 머리 감지 말기
- 잠 시간의 절반은 왼쪽으로 눕고 절반은 오른쪽으로 눕기

*** 삼태도와 칠태도

민간구전의 태교 자료로 家格이 높은 집안에서는 칠태도까지 지켰으나 일반가정에서는 삼태도까지 지켰다.

제 1도: 다섯 가름의 금기로 되어 있다.

- 산월에 임하여 머리를 감아서는 안된다.
- 높은 마루나 바위나 器物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
- 무거운 짐을 지거나 험한 산길, 위태로운 냇물을 건너서는 안된다.
- 밥을 먹을 때는 색다른 異味를 금해야 한다

이것이 삼태도대기
삼태도대기
영양가
만능력이 거대한영양가

제 2도: 임신부가 말이 많거나 웃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곡을 하거나 울어서는 안된다.

제 3도:마루, 문, 문턱 등 胎殺의 장소를 피함

제 4도: 임신부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만 들으며, 성현의 명귀를 외이며, 시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 禮樂을 들어야 한다. 三不이라 하여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며, 한발을 기우뚱 굽혀 서 있어도 안된다.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나쁜 것을 듣지 말고

제 5도: 임신부는 가로 눕지 말고 기대어 앉지도 말며, 한발을 기우뚱 굽혀 서 있어도 안된다. 다만 아이 뱃 달수가 짝수달에 한하여 왼쪽으로 가로 눕는 것이 허락되었다.

제 6도: 아이 뱃 지 석달만에 그 아이의 기단이 형성되므로, 기품이 높은 물건 등을 가까이 두고 완상하며 몸에 지니고 얼굴에 찍이도록 한다.

제 7도: 성태후에 금욕한다. 특히 산월에 행음을 금한다.

삼태도, 칠태도의 내용은 전통사회 가옥 구조와 전통사회내 미신적 요소(머리 풀어 감기, 곡하기 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모성 태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태교는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영양을 보충하며, 임신부와 태아

의 질병 예방과 신체적 안전을 고려하고 유산과 기형아 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볼 수 있다.

3. 태몽과 태아 성별 예측

(1) 태몽

태몽은 태어날 아기의 성별과 운명을 예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육아에서 태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1) 여태몽과 남태몽

남태몽: 해나 달을 삼키거나 안거나, 치마 밑에 감추는 꿈, 달이나 별을 보거나, 안거나, 가까이 하는 꿈. 학, 용, 虎, 밤, 호도, 고추, 큰 물고기, 큰 돼지, 소, 거북, 말, 비단 옷, 관대, 부처, 금 패물
여태몽: 꽃, 뱀, 작은 물고기, 금반지, 앵도 등 작은 과일

2) 태몽의 의미

꿈이란 꿈꾸는 이의 소원 성취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 10개월간 임신하고 있는 임신부는 아기를 생각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기에게 관심을 두게 된다. 즉 아기에 대한 기대나 염려, 소원 등이 그 사회의 문화적 사고에 걸맞은 꿈으로 꾸게 됨으로써 태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통사회의 사고는 임신이란 남녀의 교합에 의해 생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보다, 남녀의 교합에 의해 임신을 하되, 아기를 점지하는 것은 하늘이 관여하는 신의 소관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태아를 인격체로 소중하게 다루었고 태교로 교육하고, 생후 백일 된 갓난 아기에게 한 살이라는 나이를 부여했다. 따라서 임신하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기 점지를 계시받는 태몽을 꾸다고 믿었다.

태몽은 임신부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를 증가시키고, 태아와 출산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준비의식을 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태아성별 예측

1) 태점

태점이란 복술에 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는 것으로 임신부의 여러 가지 특징을 기초로 다양한 태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임신부 복부가 뽕족하거나 입덧이 심하며 고동스러워 하면 여태(女胎).
- 임신부가 고추를 즐겨 먹으면 남태(男胎)
- 몸을 뒤로 접히고 다니면 여태(女胎)
- 부부의 나이를 합산하여 홀수면 남태(男胎), 짝수면 여태(女胎)

- 태아의 손위 형제가 갖고 노는 끈을 목에 감으면 남태(男胎).
- 남쪽으로 향하여 가는 임신부를 붙렸을 때, 임신부가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면 남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여태(女胎).

2) 여태(女胎)를 남태(男胎)로 바꾸는 법

태아가 여태라고 판단되면, 남아선호 가치관에 의해 남태로 바꾸는 묘방이 사용되었다.

- 임신하여 낳기까지 임신부가 계속 왼쪽으로 누워 잔다.
- 고추를 많이 먹는다.
- 타인이 낳은 남태몽을 대가를 주고 산다.
- 도끼를 임신부 모르게 임신부의 이불 밑에 둔다
- 임신 3개월이 못 되었을 때, 한밤중에 우물가에 가서 왼편으로 세 번 돌며 '男爲陽'요 '女爲陰'이라고 세 번 축수하고 우물을 굽어 보아 스스로 그림자를 비치고 올 때 돌아보지 않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러한 묘방은 전통사회의 상하계층에서 모두 널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해산속(海産俗)

해산일이 가까워 오며 조산원으로서 집안 안노인이나 순산경험자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산실을 준비하였다. 대체로 초산의 경우 친정 집에서 해산하나, 친정 집 며느리가 開産하지 않는 경우 출가의인이 딸이 친정집에서 해산하면 집정집의 정기를 미리 빼앗아 간다고 여겨 이를 금(禁)하기도 하였다.

(1) 삼신빌기

산고를 틈때나 출산 직후에 삼신상을 차려 비는 풍속이 있다. 삼신이란 護産과 아기 점지 및 발육을 관장하는 신으로, 삼신빌기는 무사순산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해산 계집 놔두고 처녀 구하러 다닌다.', '애 낳다 죽는 일은 사주에도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 시 산모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삼신빌기의 풍속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2) 해산속(海産俗)

산월에는 남편이 외출을 삼가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산에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중대 결정을 내리는 책임있는 역할을 하였다. 해산속은 일종의 습관으로 형성되는데 첫 아기를 낳을 때 체험했던 해산속은 해산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 삼신상 차려 빌기: 쌀밥 3그릇, 미역 3그릇을 소반에 담아 놓고 비손(두손을 맞부딪혀 비는 것)
- 생계란 먹이기: 닭이 달걀을 낳듯이 쉽게 나라는 뜻
- 메밀수제비 먹이기: 메밀수제비가 매끄러워서 잘 넘어가는 것처럼 순산하라는 뜻

- 재떨이 두들기기과 큰 기침: 남편이 가까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산모의 심리적 위안을 도모
 - 상투잡기와 빌리기
 - 삼새끼 잡기: 외로 끈 삼(麻)으로 만든 새끼를 잡아 당기며 출산 **귀신이 근접하도록 당돌이 만작**
 - 남편의 허리안기
 - 굴뚝에 부채질 하기: 연기가 빨리 나오듯이 아기가 빨리 해산하라는 뜻
- (3) 첫국밥과 삼신빌기
- 출산을 하면 백미와 미역으로 첫 국밥을 지어 삼신빌기를 한 후 산모에게 먹였다.
- (4) 금줄
- 삼칠일 동안 금줄을 대문이나 출입문에 걸어 두었다. 남아가 태어나면 새끼를 왼쪽으로 끈 후 고추 3개 숯덩이 3개를 섞바꾸어 끼워서 금줄을 만들고 여아가 태어나면 청솔가지와 숯을 번갈아 꼬아서 금줄을 만들었다. 금줄은 아기 출산을 알리는 것 외에 외인의 출입을 삼가하도록 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와 영아의 질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정신의**
- <금줄의 의미>
- 금줄을 만들때는 반드시 양끝을 자르지 않는데 이는 아기와 산모의 수명이 끝없이 이어지라는 염원을 반영한다.
 - 금줄은 왼쪽으로 꼬는데 이는 왼쪽이란 방위가 벽사의 방위이므로 왼쪽으로 새끼를 꼬아 걸면 귀신이 길을 찾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붉은 고추는 남성 출산을 알리며 힘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숯덩이가 제독의 의미가 있음과 연결시켜 볼 때, 금줄에 숯을 다는 것은 가족이나 외인 출입으로 인한 잡균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붉은 고추 3개, 청솔가지 3개 숯덩이 3개 등 3개의 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이란 수가 길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술가지는 절개의 상징(常錄)과 辟邪의 상징(뱀죽하기 때문에 악귀가 침입하지 못함)이 있다.

II. 젓아기 시기의 육아 풍속

한국 전통사회내 젓아기 육아는 젓아기 생활의 단점을 극복해 주고,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제공하면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도리도리, 곤지곤지 등 주로 신체적 기능의 발달을 위한 동작훈련과 단순한 어휘의 리듬감을 반복시킴으로써 젓아기의 어휘발달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1. 젓아기의 동작 훈련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젓아기에게 여러 가지 동작 훈련을 위한 놀이를 창안하여 가르쳤다. 젓아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이들 젓아기 놀이는 아기의 동작 훈련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작훈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도리도리

오랫동안 누워서 생활하는 아기에게 목운동을 시켜주기 위해 창안된 동작훈련이라 할 수 있다.

2) 짹짹

도리도리를 할 수 있는 젓아기에게 가르쳤다는 이 놀이는 젓아기의 중요 발달과업인 손과 눈의 협응(eye-hand coordination)을 위한 동작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곤지곤지

이 놀이는 눈과 손의 협응을 교육목표로 창안된 놀이이지만, 짹짹보다 더 세련된 동작을 요구하는 놀이이다.

4) 잼잼

짹짹보다 더 세련된 소근육 운동으로서 곤지곤지를 가르쳤고, 곤지곤지보다 더 세련된 손가락의 손근육 운동인 잼잼은 주로 열손가락의 동작을 자극하는 동작훈련이라 할 수 있다.

5) 각궁

대상연속성 - 4~8개월의 발달 12개월에 안전 발달 재발달이함

이 놀이는 젓아기의 얼굴을 가렸다가 벗겨 주거나 얼굴을 등이나 이불에 숨겼다가 다시 나타내는 놀이다. 이 놀이는 앞의 놀이와 달리 놀이 상대 즉, 협조자가 있어야 가능한 놀이이며, 눈을 가렸다가 다시 고개 들고 보아도, 놀이 협조자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의 대상 영속성 훈련으로 해석가능하다.

6) 고네고네

연속성 : 4~8개월 순환반복기의 시기

이 놀이는 젓아기의 두 다리에 힘을 올려주어 설 수 있는 발달과업에 대처해 줄 수 있는 동작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각궁 놀이는 아기와 성인의 균등한 놀이 역할이 요구되는 데 반해 이 놀이는 성인이 보다 주체가 된다.

7) 불무불무

‘부라부라’, ‘부와부와’ 등의 몇가지 차이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놀이는 대근육을 사용한 동작이므로, 아기의 다리 운동 겸 전신운동을 위한 목표에 맞도록 창안된 놀이이다. 성인이 아기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두 손으로 아기의 양 겨드랑이를 붙잡아 받쳐주면서 아기의 몸을 좌측과 우측으로 번갈

아 흔들거나 앞뒤로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흔들어 주면서 '불무불무 불무야, 불무딱딱 불무야'라는 노래로 신명을 돋우면서 아기의 전신이 움직이게 하는 동작의 연속이다.

8) 따로따로

보행기가 없었던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아기가 혼자 일어설 수 있고, 걸음마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목표를 위해 따로따로라는 놀이를 창안하여 가르쳤다. 아기를 방모서리에 기대어 1-2초 동안 세워둠으로써 서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9) 목발타기 또는 무등타기

앞의 놀이보다는 좀 더 자란 아기를 위한 놀이로, 이 놀이에서 아기는 높은 곳에 놓여짐으로서 느끼는 공포감과 위협의식을 경험하지만, 이런 느낌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심리적 쾌감을 맛보게도 되어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최초로 경험하는 위험이 된다.

10) 단지팔기

12~24개월 대소변가리는 시기 Toilet training.

일명 '똥단지 팔기'라고도 하는 이 놀이는 성인이 유아를 자기의 허리 뒤로 가로 업은 것이다. 이렇게 유아를 허리 뒤로 돌려서 가로 업은 성인은 일어서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똥단지 사이소, 똥단지 사이소" 라고 외친다. 이때 다른 가족들도 있어 "그 단지 얼마요?"라고 물으면, 단지장수는 그쪽으로 가고 단지 장수를 부른 사람은 "아이구 똥내세야, 냄새가 고약해서 단지 안사요!"라고 단지장수를 쫓아낸다. 이러한 행동의 연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즐긴다. 이 놀이는 불안정한 자세로서 공포감과 위협의식을 느끼는 상태에서 안전을 찾으면서 신체적 균형을 취하게 하는 기능훈련에 목적이 있으며, 아기에게 배변에 대한 불결의식을 일깨워 주어 배변훈련을 위한 심적 준비를 갖게 하는 목적도 있다.

대소변은 불결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이므로, 사람들이 꺼린다는 것을 아기는 배우게 된다. 이런 준비의식을 갖추게 한 다음, 아기에게 배변훈련을 시작하면, 아기는 무리없이 어른의 요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대소변이란 완전 무능의 아기에게 자신의 힘으로 창조해 낸 유일무이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무척 자랑스러워 주무르고 만지며 즐기려고 한다. 이때 어른이 방해하면 적개심을 보이게 되어 배변훈련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는 동시에 이른바 항문기 고착이 이루어지고 항문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팔기와 같은 동작훈련 놀이를 통하여 대소변의 불결의식이 생긴 아기는 갈등없이 어른의 배변가리기 훈련에 협조하게 되고, 어른은 칭찬과 격려로 아기를 돕게 된다.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에 비추어 보면, 단지팔기 놀이를 통하여 아기는 훗날 생산성과 창의성의 기틀이 형성될 수 있다.

11) 기타

이외에 유아가 목을 가누기 전에 목을 가누는 연습을 시킨 것도 있었고, 몸을 뒤집기 전에 뒤집는 동작을 위해 유아의 몸을 옆으로 밀어 모로 누이는 연습도 있었다. 아기의 기는(crawl) 훈련을 위해 아기의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에 유아가 좋아하는 물건을 놓아두고 아기가 손을 뻗쳐 잡으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기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하체가 무거워 기지 못할 때는 아기 하체를 약간 밀어 주면 길 수 있었고, 하체를 뻗쳐 주어서 오래 엎드려 있는 유아가 코방아를 찢지 않도록 했으며, 이불에 싸서 엮는 연습, 손으로 잡아주고 걸음마를 시키는 연습, 구석에 세워 서는 연습 등이 있었다.

2. 아기 노리개

한국 전통사회에는 젖아기의 놀이를 돕는 장난감은 없었다. 그러나 아기노리개라는 장식품을 겸한辟邪용의 것이 있었다. 어떤 노리개는 장난감은 아니나 젖아기의 무료함에 소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 방울과 자물통

아기노리개에는 아기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나게 만든 방울이 달려 있다. 작게 만든 백동이나 은제의 방울은 소리로서 아기가 있는 장소와 위치를 성인가족에게 알려 주는 동시에辟邪용, 즉 소리로서 잡귀의 근접을 물리친다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했다.

박시영
노리개와 자물통

2) 호랑이 발톱, 칼, 도끼

아기노리개에 달린 호랑이 발톱은 호랑이의 강한 힘과 신령스런 힘에 의존함으로써 잡귀에게 겁주려는 발상이었고, 도끼나 칼은 작게 만들어 옷고름에 채웠다. 이 물건은 그 용도의 상징으로 잡귀를 위협하려는 발상이었다.

3) 산초뿌리

아기노리개로서보다는 역시辟邪용, 예방용으로 아기옷에 채워졌던 산초 식물의 뿌리는 약초인 동시에 향기가 특이하여, 약용과辟邪에 적절하였으며, 아기의 돌림병을 예방한다고 믿어졌다.

3. 자장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젖아기를 재우기 위해 업고 다니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이 자장가는 전통 사회의 훌륭한 육아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첫째, 자장가가 젖아기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자장가의 노래 변용을 통해 젖아기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출산 후 24개월까지의 인지발달이 감각 및 운동에 의한다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전통사회에서 젖아기에 대한 육아는 아기의 신체기능발달을 촉진시키는 동작훈련에 초점을 둬으로써 후기 인지발달을 위한 강한 토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도리도리 짹짹, 고네고네, 단지팔기, 자장가 등은 유아가 알아듣기 쉽도록 단순한 어휘의 리드미컬한 반복으로 유아의 청각적 변별 훈련과 음성-청각-지각간의 연관 능력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유아의 성장에 따라 놀이 내용을 발달에 적합하도록 다양화시킴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게 대처했으며, 이 시기 이후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배변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단지 팔기 등의 놀이활동을 통해 대소변 훈련에 대처하는 심리적 준비를 도모하는 등 과학적 육아 행동을 발달시켰다.

4. 아기 나들이

1) 뒷간 다녀 외출하기

아기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뒷간에 들렀다가 길을 떠나도록 했다. 유아가 변의가 없어도 억지로 뒷간에 가서 앉았다가 오라고 일렀는데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외출시 용변처리 습관을 익혀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뒷간에 외출시키는 것은 뒷간의 암모니아 냄새가 잡귀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몸에 배인 뒷간의 향기롭지 못한 냄새로 인해 잡귀가 근접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전염병이 마을에 돌 때, 뒷간을 푼다든지, 평소에 대변주머니를 채워준다든지 하는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황칠(숯 검정칠)하고 나들이하기

잡귀의 근접을 막기 위해 아기를 흠하고 밍게 생기도록 우스꽝스럽게 위장을 하였다. "예쁘다", "잘 생겼다"라는 말 대신, "못 생긴 녀석", "밍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3) 연기에 옷 그슬리기

청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옷을 그 위에 끌고루 흔들어 연기와 청솔 타는 냄새가 옷과 포대기에 배어 들게 하였다. 이는 나들이 길에 웁아 올 수 있는 병균을 불길로 제독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4) 북어 머리 옷섶에 달기

5) 붉은 고추 꽃기

6) 자물통 달기

아기 옷에 은제의 작고 작은 자물통이나 도끼, 칼, 방울, 호랑이 발톱 등을 달아서 외출하였다. 자물통으로 아기 수명을 가두었으니 귀신이 체념하고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고, 도끼나 칼은 귀신을 겁주는 노리개였다. 방울도 벽사용이었고, 호랑이 발톱은 호랑이라는 백수의 왕이 아기를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5. 아기 업기

아기는 태중에 있을 때, 가슴에 두 팔을 오그려 모으고, 배에는 두 다리를 오그려 모아 앞으로 구부린 채 280일을 지낸다. 태중에서의 이런 자세는 출생 후에도 아기를 업어주며 또 업고 누일 때 비슷

한 자세로 업고 눕히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아기 가슴에 무엇을 안겨주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곧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태중에서의 자세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업어주는 어른의 등에 아기의 가슴과 복부가 닿을 수 있고, 업는 이의 등에 아기가 드릴 수도 있고, 두 팔로 업는 이를 안을 수도 있는 자세가 되도록 업어 주는 방식은 아기에게 보다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업는 행동은 아기와 어머니간에 피부접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에서 볼 때도 이상적인 육아 행동이라 할 수 있다.

6. 이유와 배변훈련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유와 배변훈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때가 되면 저절로 이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이유를 강제로 강요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느긋한 이유 태도는 아기에게 구강적 만족을 누리며 자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유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아기에게 젖니가 돋으면서, 엄마의 유두를 깨무는 것이 이유시기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가 되면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 아기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생의 임신이 확실시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조모는 자신의 빈젖을 이유하는 아기에게 물리며 이유의 고통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했다.

한편 이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 유두에 쓴맛이 나는 약이나 먹물 등을 바른다--젖을 멀리하게 만들.

② 수치심을 갖게 한다

③ 유아가 젖을 빨 때마다 어머니가 아픈 시늉을 한다. -- 동정심 유발을 통해 이유.

④ 젖을 말리기 위해 인삼이나 엿기름을 먹는다.

배변 훈련 역시 때가 되면 저절로 가리게 된다는 식의 느긋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대소변 훈련기에는 뒤보는 부분이 열려진 하의를 지어 입혔다. 이 하의는 뒤보려는 자세로 앉으면 저절로 아래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혼자서 대소변을 보는데 손쉽게 하였다.

이 시기 유아가 이유와 배변훈련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 불만을 놀이나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세강달강(이유에서 생길 수 있는 모성애에 대한 적개심 해소)이나 꼬부랑 할머니(배변훈련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배변의 즐겁음 수행도 모)노래 등이 이용되었다.

떨가누서안은 먹까한다 - 배변에 대해서는 허용정 - 일본 이이토보리노츠

II. 고운 세 살기

이 시기의 유아가 귀염둥이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고운 세 살이라는 발달용어가 사용되었다.

1. 기본 습관들이기

유아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알맞게 여러 가지 떼쓰는 버릇을 바로 잡고, 독립심 훈련으로서 식사, 화장실 출입, 옷 입기, 신 신기 등 자조기능을 습득시켰다.

2. 버릇 교정과 공포

수치심을 자극시키고 조롱받는 부끄럼을 상기시킴으로써 버릇을 교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할아버지, 이 애가 자꾸 우는데 침 좀 놓아주세요"

"사내 대장부가 부끄럽게 울다니"

"문밖에 호랑이가 왔다"

그밖에 귀신, 공동묘지, 당집 등을 버릇 교정을 위한 공포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3. 식사예절

식사시 오른손 사용을 강조하였다(‘원손은 불효’)

① 너댓살의 유아에게 다소 엄격한 식사예절을 요구하였다.

② 음식을 흘리지 말 것

③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가 수저를 잡지 않으며,

④ 특정 음식을 편식하지 않으며,

⑤ 음식 먹으며 손과 발을 떨지 말며 등등

한편 전통사회에서는 아이의 수명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온 가족이 자기 몫의 밥을 먹다가 마지막 한 숟갈을 남겨서 아들에게 먹이기도 했다.

4. 자조기능

7세 이전에 옷입기(옷고름 매기, 버선 신기, 허리띠 매기, 치마끈 매기, 대님 매기 등), 젓가락질 하기, 잠자기, 세수하기, 요강 비우기, 머리빗기, 안고 일어서기, 出必告 反必面 등을 교육시켰다.

III. 미운 일곱 살기

1. 미운 일곱 살의 의미

약 5세부터 7세경에 이르는 이 시기의 아동은 품안의 자식으로 행동하기보다, 가정 밖으로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독립적 존재로 성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은 왕성한 사회적 활동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기 쉽다.

한편 자신의 생각만큼 정교하지 않은 운동기능이나 미성숙한 지적,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자기의 기대만큼 일정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경험하는 열등감이, 성인의 호의적 접근에 대해 애교 있고 귀염성 있게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 시기 아동은 동생의 출생으로 인해 자신에게 쏟아지던 가족의 애정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오줌싸개, 손가락 빨기 등의 퇴행을 보이기 쉽다.

한편 이 시기 유아에게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행동에 대해 성인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훈육을 경험하기 쉽고 이로 인해 아동은 균형 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시기의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미운 일곱 살로 평가되기 쉽다.

2. 양육행동

1) 형제간 갈등

전통사회의 경우 첫째는 셋째와 둘째는 넷째와 잘 통한다고 했다. 이는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생길 수 있고, 형의 위치에서 볼 때 바로 밑의 동생은 자신이 누리던 많은 혜택을 빼앗은 자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형제간 갈등은 형우제공의 명제에 따라 중재되었는데, 형은 동생에게 양보하도록 설득했으며, 동생은 형에게 도전하지 않도록 주의 주었다. 한편 오빠는 아버지로 다음으로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남동생은 어머니 대신 돌보아야 할 대상이기에 여형제와 남형제간의 갈등은 언제나 여형제가 양보할 것으로 종용되었다.

2) 과업

일찍부터 가사 참여를 권장했다. 아동들은 본격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7세 이전에 방치우기, 아기보기, 곡식 명석에 닭이나 새끼, 재떨이나 요강비우기, 동생업어주기, 소 염소 등 가

축 몰아오기, 쇠죽쭈기, 땀감운반 등의 가사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교육받았다.

3) 고시네, 까치밥

고시네, 까치밥 등을 통해 새나 개미와 같은 미물에게도 음식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자비와 사랑을 키워주었다.

4) 체벌

전통사회에서는 훈육 담당자가 훈육을 위해 매질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매질은 최종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훈육방법이었지만, 잘못을 저지른 아동이 맞는 매질과 아동으로 하여금 훈육자를 때리게 하는 매질이 있었다.

아동이 매를 맞는 경우, 매 맞을 아동이 손수 회초리를 준비해 오게 하여, 목침이나 올라설 것 위에 세워두고 때리는 방법과 매맞을 아동 자신이 회초리를 마련하여 조부모의 묘소까지 가서 묘 앞에서 매를 맞게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조상의 묘소 앞에서 잘못된 아동으로 하여금 부친의 종아리를 때리게 하여 오히려 감동과 위협을 받게 함으로써 매질의 역효과를 노리는 방법도 있었고, 빈소에서 아동이 자기의 부친, 또는 모친의 종아리를 때리게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일례로 과거에 등과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동구밖에서 싸리나무를 보고 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싸리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맞으며 글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는 체벌이 훈육에 곧잘 이용되었다.

5) 글공부

어휘연상식 노래로써 언문 즉 한글을 배웠다. 한글은 하루 아침 통시(뒹간) 글이라고 천시되기도 했지만, 이런 한글은 7세에 이전에 배우기 시작했다. 낮 놓고 7자라는 식의 어휘 연상식 방법으로 한글교육은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글자를 잊어서 생각나지 않을 때, 연상된 어휘를 떠올려 글자를 알도록 했다.

어휘 연상에 의한 한글 교습은 기억의 효과를 높여 줄 뿐 아니라, 학습속도도 촉진시키는 효율성이 있다. 즉 학습자료를 유의미한 문맥관계나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문장으로 조직하여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성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기억과 파지의 효과를 장기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의 기초 글자를 익히면 전달문, 서간문 등을 읽힘으로써 읽기 훈련을 시켰다. 한글의 기초 학습이 이루어지면 남자는 한자공부를 시작하였고, 여자는 한글로 쓰여진 여성교양서를 공부하였다.

6) 수개념

여섯 살이 되면 셈하는 방법과 동서남북의 방위 이름을 가르치고 아홉 살이 되면 날짜 계산하는 방

가가 가다가 거거 거렁에 고고 고기잡아 구구 국을 끓여	나나 나도 먹고 너너 너도 먹고 노노 노파 먹자 누누 누가 먼저	다다 다 먹었나 더더 더 다고 도도 돛다 먹자 두두 두지 말고	라라 소리하며 러러 너럼너럼 로로 료리하여 루루 누렁지까지
---	--	---	---

법을 가르쳤다. ‘열살이 되면 남자는 스승에게 나아가 사랑방에서 잠자며 글쓰기와 셈본을 배우게 된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기초 수개념은 6살 정도에, 고차 수개념은 10세 정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

다.

10이하의 수개념은 일찍 시작했는데 5개 돌 또는 30-40개 돌 공기받기가 수개념 획득에 이용되었다. 한편 제기차기나 자치기 등을 통해 6세 이전에 놀이를 통한 기본적인 수세기 학습이 이루어졌다.

동서남북은 6세 전후에 가르쳤는데 이를 위해 좌우 방위를 먼저 가르쳤다. '돌림병이 있어야 좌우를 분별한다'라는 속언이 있는데 이는 돌림병이 돌면, 왼발로 땅을 3번 차고, 3번 침을 뱉는 등 아동에게 원편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심리 예방법이 가르쳐졌기 때문이다. 이런 방위 학습이 기초로 이루어진 다음에 확대된 방위개념으로 동서남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동서남북은 잠자리에서 배갯머리 향을 정하는데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도록 하였다.

구체적 전자기 - 수개념 형성기

7) 가족 호칭, 친족 호칭

촌수와 향렬을 가르쳐 돌림자, 향렬, 촌수로 상대방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인지발달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의 아동은 구체적 설명으로 명료하게 학습시키기 보다, 생활장면을 통해 아동 자신이 더듬어 깨닫고, 때로 질문하여 설명을 듣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3. 놀이

1) 동요

전통사회 아동의 동요는 수유기에 어른들이 불러 주었던

- ① 자장가와, 배변훈련시기와 이유기에 아동이 겪어내는 여러 가지 갈등과 욕구불만을 달래고 해소시키면서 발달과업을 즐겁게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 ② 동요(세강달강, 꼬부랑 할머니, 이빠기 동요), 놀이와 결부되어 놀이 진행을 돕기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불려지는
- ③ 동요(이거래, 저거래), 유머와 위트 감각으로 아동의 어휘발달 및 연상력과 의성어의 학습을 돕는
- ④ 동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동요는 동요외에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했으나, 7살이후가 되면 순수한 동요로서 사용되어지면서, 아동의 언어, 리듬 및 유머 감각, 자연적 사물이나 생활의 경험을 넓히는데 이용되어졌다.

2) 수수께끼

후미진 속, 아늑한 공간에 모여서 자신이 듣고 배운 것(가족 호칭과 관련된 것, 성기, 배변과 관련된 것, 동·식물과 관련된 것)을 서로 나누고 학습하는 놀이로 수수께끼가 곧 잘 사용되었다.



3) 놀이활동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유아기까지 기어올라가서 내려오기, 멀리뛰기, 꼬리따기, 수건돌리기, 그림자놀이 등과 같이 장난감이 사용되지 않는 놀이가 대부분이었다.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팔매질과 과녁맞추기, 나무시집 보내기, 공기놀이, 비석놀이, 땅따먹기 등과 같이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활동이 이루어지고, 좀 더 성장하면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자치기 등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한 놀이도구를 이용한 놀이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놀이활동을 남녀놀이로 구분하면, 강강수월래, 널뛰기, 그네뛰기 등을 여아놀이로, 윷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제기차기, 고누놀이, 종경도 놀이 등을 남아놀이로 구분할 수 있다.

4) 동화와 민담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의 생활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동화와 민담 등이 이용되었다. 동화와 민담은 아

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짧은 형식에서 긴 형식으로 변화시켜 가며 들려주었다.

동화와 민담의 내용은 ① 권선징악의 주제로 오륜의 덕목과 관련된 것, ② 가족이나 짐승에 대한 자비행동, ③ 좋지 못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귀신 동화, ④ 모범적 실존 인물에 대한 동화 등으로 아동의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세강달강 세강달강
장에 간 애비는
나무 한 짐 팔아다가
밤 한톨 샀거들랑
물길러 간 애미는
물을 석동이나 붓고
장작을 석짐이나 때고
가마솥에 살어지렁
깍질일랑 애비 주고
보물이랑 애미 주고
알맹이는 니강 내강 먹자

이거래 저거래 각거래
천도만도 주머니끈
똥똥말아 장도칼
진 때 역성 랑
닷돈 오피

이거래 저거래 각거래
통시망구 또망구
조리김치 장두칼
원 유 채

웃니 빠진 갈강아지
아랫니 빠진 벅수이
앞니 빠진 갈강아지
우물결에 가지마라
두레꼭지 땃꼭하면
붕어새끼 놀라뜨다

여이차 여이차
동아줄을 당겨라
우리 개똥이 동앗줄은 금동앗줄
우리 소똥이 동앗줄은 은동앗줄
천석지기 만석지기 부럽지 않다
여이차 여이차 동앗줄을 땡겨라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이 어르는 소리

문재현(마을수준교육과정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서양에서는 요즘에야 비로소 공감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과 방법이 발달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대리양육자) 사이에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상호작용의 장애라고 하고,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작용 지도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부모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와 부모(대리양육자)가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상황 즉, 젖먹일 때, 얼굴을 마주보며 놀 때, 잠을 잘 때,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 맞추주기, 풍부한 표정으로 상호작용하기, 아이의 동작을 반복해주기, 맛사지, 몇 가지 놀이를 가르쳐주기 등이다. 젖(우유) 먹일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에게 젖(우유)을 먹일 때 표정과 태도는 어떤가?

공감적 상호작용이 잘 되는 상황은 아이는 젖을 열심히 빨고 부모를 조용하게 쳐다보고,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맞춘 상태에서 웃는 낯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기분이 좋고 포근한 안정감을 느낀다. 공감적 상호작용이 안 되는 상황은 아이가 계속 몸을 뒤치고 거부하고, 부모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든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럴 때를 공감적 상호작용 장애라고 한다. 많은 부모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경우 여러 장애에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동학과 심리학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착 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 젖을 먹일 때 엄마가 딴 짓을 하면 할머니가 못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의 발달단계마다 다양한 노래와 놀이를 준비해 놓고 전 가족이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감적 상호작용을 몸에 배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체험과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문화유산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세계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참된 빛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시간 맞춰서 우유를 준다거나 아이를 따로 재우는 것이 과학적인 육아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은데 서양의 이런 변화를 알거나 하고 있는 것일까?

2. 아이 어르는 소리는 왜 배워야 할까?

한 사회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새나 동물은 거의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본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문화적 보살핌이 없으면 아

이는 성장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아이를 기를 본능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대다수 아이들이 죽거나 기아 상태에 빠질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을 몰라서 당황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통합이 불가능해진다. 통합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를 기를 경우 그 사회 성원으로서의 통합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질 수 없고, 한 집단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방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한 사회의 문화적 기반으로서 육아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탯줄이다.

사람은 생리적 탯줄이 끊어지면 사회문화적 탯줄로 이어져야 한다. 사람이 사회화, 문화화 되는 과정은 모방, 말, 추론에 의한 것이다. 부모(대리양육자)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야기를 통해 듣고 판단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어린 시절에 결정적인 것은 모방이고 성장할수록 말과 추론에 의해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아이 어르는 소리는 초기 사회화와 문화화의 핵심 내용이며 문화의 이유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아이는 모유를 먹다가 고형음식을 먹기 전에 이유식을 먹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유식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서 만든 것인데 문화에도 이러한 이유식이 있다. 즉,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를 섞어서 그것을 배우고 나면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이 어르는 소리를 문화의 이유식이라고 불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 어르는 소리를 통해서 축적된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아이 어르는 소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 말, 노래, 시, 산문, 춤 등을 비압력적인 상황에서 가장 즐겁게 배우게 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략이었다.

한 부족, 또는 민족의 육아방식은 수 백,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가 집적되고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회성원들이 합의하고 전승하는 민족문화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젖먹이는 방식, 똥오줌 가리는 훈련에 있어서 허용적인 부족의 경우 사람들의 성격이 관대하고 낙천적인 반면, 엄격한 부족의 경우에는 인색하고 다툼이 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의 육아방식은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되는데 비해 춤과 노래가 발달하지 못한 민족은 이야기나 놀이감을 활용하는 놀이가 중심이 된다. 이처럼 육아방식은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를 습득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육아방식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만들어 온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교육목적과 교육방식은 현대 유아교육이 요구하는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방식과 비교하더라도 그 과학성과 타당성이 입증되는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3.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장자장 우리애기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을깎라
멍멍개야 짖지마라	우리애기 잠을깎라

아이를 재울 때 공감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책 읽어주기를 권한다. 그러나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 눈을 마주칠 수 없고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표정적 공감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책은 입말이 아니라 글말이기 때문에 아이와 자연스러운 정서적 교류를 방해한다.

반서명, 현명

자기성리수필심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은 어떨까?

서양에서는 주로 요람에 아이를 눕혀 놓고 흔들면서 자장가를 부르기 때문에 주로 청각에 호소한다. 그러나 우리 자장가는 아기의 모든 감각에 호소하는 자장가이다. 엄마의 노랫소리에 청각이 발달하고 부모에게서 나는 땀냄새와 젖냄새를 맡으며 후각이 예민해진다. 또한 토닥토닥 두드리는 감촉에 촉감이 발달하며 자연스럽게 장단도 익히게 된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이의 시각도 발달한다. 꿈길까지 엄마의 부드러운 손짓과 달콤한 목소리와 친근한 냄새가 따라가는 것이다.

자장가는 보통 5~6살까지 불러준다. 1살까지는 아이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있으면서도 옛날에 누구나 불렀을 자장가를 불러준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장자장 우리애기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깰라
멍멍개야 짖지마라	우리 애기 잠을 깰라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말이 익숙해지고 사고가 많이 발달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때는 아이가 주변에서 겪은 사건들이나 좋아하는 동물들을 소재로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준다. 우리 아이의 경우 특히 공룡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룡 자장가를 많이 불러 주었다.

깜깜한 밤 새싹들은	무서워 잠을 어떻게 자나
하늘에 계신 별님달님	자장가를 부를거야
아빠 품에 꼭 안겨서	새근새근 꿈노래로
칭얼칭얼 잠노래로	그쳤다가 또 하면서
자장자장 우리 한뼘	
우리 한뼘 꿈길 가면	왕공룡이 달려오고
익룡은 하늘에서	같이 놀자 노래하고
물속에선 수장룡이	수영하자 줄라대네
모두가 어울려 노는	즐거운 공룡 세상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장자장 우리애기

6~7살이 되면 부모가 자기 가치관을 담아서 자장가를 부를 수 있다.

우리 한뼘 이제 자라	어떤 사람 되야 할까
불의에는 저항하고	호기심은 넘쳐나고
다른 사람 아픔에도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장자장 우리 애기

4. 상체 훈련을 위한 감각과 동작훈련(4, 5개월~ 익숙해질때까지)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은 운동, 감각발달에 집중되어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의미있는 변화는 2~3주가 지나면 고개를 드는 것이다. 2개월쯤 되면 가슴을 들고, 5~6개월 되면 뒤집는다. 4개월쯤 되면 앉혀주면 앉고, 제대로 앉는 것은 8~9개월이 되어야 한다. 제대로 기는 것은 9개월이 되어야 하고, 잡고 일어나는 것은 보통 9~10개월, 혼자 설 수 있는 것은 1년쯤 되어야 한다.

고개를 든다는 것은 앉을 준비,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목, 등, 허리, 둔부가 굽어 있어야 설 수 있는데, 태어날 때는 엉치뼈 굽이, 등 굽이는 발달되어 있지만 목굽이, 허리굽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은 목굽이가 발달하여 고개 돌리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워있던 아이가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자세가 높아지고, 운동발달에서도 손이 해방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반응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기기 시작하면 공간이동이 가능하고, 탐색이 활발해지고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며 서게 되면 더욱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4~8개월까지는 하체보다는 상체가 먼저 발달하고 배밀이와 양손을 이용해서 기게 되고 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훨씬 나중이다. 상체 동작훈련을 먼저 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이 시기의 놀이는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은 얼굴 표정을 만들어 내는 능력, 다른 사람의 표정,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애착이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하는 상체 동작훈련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결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놀이다.

① 쭈까쭈까

쭈까 쭈까 쭈쭈	쭈까쭈까 쭈쭈
우리 애기 잘 크다	쭈까쭈까 쭈쭈
쭈까 쭈까 쭈쭈	쭈까쭈까 쭈쭈
우리 애기 잘 크다	쭈까쭈까 쭈쭈

【방법】

누워있는 아기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노래를 부른다.

②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우리 애기 잘한다
뭐가 좋아 흔들나	신이 나서 흔들지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돌도리

【방법】 ① 누구나 아는 것처럼 도리도리는 부모와 아이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놀이이다.

② 처음에는 잘 따라하지 않지만 수 십번 수 백번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분 좋을 때 아이가 먼저 도리도리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의미】 이 놀이는 중추 신경계의 발달과 앞만 보던 아이를 양쪽을 보게 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표정을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감정에 바로 반응하며 상호작용을 잘하고 애착적인 아이를 만든다.

특히 이 시기의 표정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화내고 기쁜 표정을 타고난다고 하는데 이는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쓴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의 표정 변화로

잘 알 수 있다.

[3] 짹짹

짹짹 짹짹 우리 애기 잘도 논다

짹짹 짹짹 우리 강아지 잘도 논다

【방법】 ① 짹짹 역시 처음에는 잘 따라하지 않는다.

② 부모가 앞에서 계속 일러주고 어떤 때는 무릎 위에 앉혀놓고 팔을 마주쳐주는 연습을 시킨다.

【의미】 짹짹을 배움으로써 아이는 전세계 사람들의 공통언어를 하나 배운 셈이다. 신이 났을 때, 기분 좋게 결정할 때,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를 느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신날 때 서로 감흥을 공유하는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또한 주의 집중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다.

짹짹은 우리 음악의 기본어법을 가르쳐준다. 앞에 강박이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나 앞소리가 짧고 뒷소리가 긴 것을 어단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짹짹이다.

짹짹은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발음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말을 안 배우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근육을 주시하다가 어느날부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신체가 발달하면서 점차로 말을 하기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한다. 젓을 빠는 복잡한 입의 운동, 이를 이용하여 씹는 훈련, 푸우우하는 풀무질 등 모두 아이가 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입술소리 그 다음에는 혀소리, 잇소리, 어금니소리 등의 순서로 말을 배운다. 우리 아이 어르는 소리는 이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맘마, 엄마(“ㅁ” 입술소리)> 빠빠, 아빠(“ㅂ” 입술소리)> 도리도리(“ㄷ” 혀소리)> 짹짹(“ㄹ(ㄹ)” 잇소리)> 곤지곤지(“ㄱ” 어금니소리)

짹짹으로 삼채를 배워볼까? 텅 텅 텅따쿵따

[4]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곤지

【방법】 ① 곤지곤지는 오른손의 검지 손가락을 왼손바닥의 가운데에 정확하게 찌르는 놀이이다.

【의미】 곤지곤지는 대표적인 오른손 강화 훈련이다. 왜 그럴까? 7~8개월이 되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오른손 강화훈련을 한다. 오른손은 선하고 왼손은 악하다는 상징적 의미와 오른손을 같이 쓰지 않았을 때 재앙이 왔고 오른손을 같이 써야 한다는 주술적 사고의 반영이다. 그리고 공동 노동을 하게 되면서 노동 동작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의 박자 감각과 리듬감을 어려서부터 사회적 조직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곤지곤지의 특징은 집게손가락 훈련이다. 엄지와 검지의 맞붙임과 엄지와 네 손가락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로소 섬세한 손동작이 가능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곤지곤지를 통해 정교한 손놀림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젓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곤지곤지로 이채를 배워볼까? 텅 텅 텅 텅 텅

[5] 잼잼잼

잼잼 잼잼

엄마따라 잼잼

아빠 따라 잼잼

고사리 손이 잼잼

쥐었다 폈다 잼잼

잼잼 잼잼

【방법】 ① 잼잼은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놀이이다.

【의미】 아이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엄지손가락을 꼭 쥐는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살이 되면서 주먹이 제법 쥐어진다. 사람이 근육을 제대로 조절해서 주먹을 쥐는 것은 6~7살이다. 엄지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인간은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졌고 도구를 만들고 두 발로 서게 되고 두뇌가 발달하는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잼잼은 엄지손가락과 손의 모든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놀이이고, 손의 근육뿐 아니라 어깨근육까지 사용한다. 잼잼을 할 때 움직이는 근육과 관절은 얼마나 될까? 50개의 근육, 30개의 관절이 사용된다. 잼잼을 하게 되기까지는 인간 발달에 엄청난 수고로움과 노력이 뒤따른다.

잼잼은 또한 아이에게 쥐는 것과 펴는 것을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움켜쥐기만 하는 이기심을 벗어나 나누어 갖는 법을 배우게 한다. 여기에는 운동발달과 함께 심리적 발달까지 포함되어 있다.

잼잼으로 일채를 배워볼까? 텅 텅 텅 텅

[6] 대상영속성

까꿍

까꿍

【방법】 ① 아이 몰래 얼굴을 잠시 숨겼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까꿍”한다.

② 처음에 엄마가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가 먼저 놀이를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7] 새 눈은 깜빡

새 눈은 깜빡

울 애기 눈은 반짝

【방법】 ① 아이를 등에 업고 “까꿍” 하듯이 아이를 위 아래로 추스르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아이 얼굴을 한 번 보고 왼쪽으로 돌아 한 번 본다.

② 앉아서 할 때는 손뼉 치고(새 눈은) 주먹 쥐고(깜빡), 손뼉 치고(울 애기) 주먹을 쥐었다가 활짝 편다(반짝).

【의미】 8개월부터 사물이나 사람이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와 분리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대상영속성이 생긴다. 이를 통해 아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된다.

서양에서는 대상영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를 굴을 통과하게 하지만 우리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표정에 반응하면서 확인한다. 까꿍 놀이를 통해 끊임없이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서 창조성이 생긴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공감적 보살핌의 가장 좋은 형태이다. 아이를 앞으로 안으면 엄마를 울

려다보아야 하고 엄마의 자세 자체가 아이에게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고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5. 하체 훈련을 위한 감각과 동작훈련(8개월부터~24개월)

8개월이 지나서부터 아이들은 하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진다. 붙잡아 주어야 일어나는 단계를 거쳐 혼자서 아이들이 일어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요즘은 보행기에 빨리 아이를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이에게 균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편의에 의해 억지로 일어서야 하는 스트레스를 준다. 일어서는 일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놀이로 만들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체 동작훈련이다. 아마 이족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적당한 것이 공룡체형일 것이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하체는 굽고 머리는 작는데 그런 체형이 아닌 인간은 어렸을 때 많이 기게 하거나 몸 전체의 근육을 단련시킨 상태에서 일어서야 한다.

인간이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도구를 사용한 다음 손이 해방되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보는데 인류가 선 것은 700만년 전이고 도구를 사용한 것은 250만년 전이다. 450만년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즉 일어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다. 사람이 되어가는 발달 과정을 조직한 것이 하체 동작훈련이다. 또한 걷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엄마와 아이가 얼굴을 맞대고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아이의 발달이 사회적 지지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혼자 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먼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한다. 자극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경험도 확장된다. 따라서 주변의 우호적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품앗이 육아를 통해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엄마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관계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① 짹짹

짹짹하다 짹짹해
우리 애기 짹짹해

【방법】 ① 아이를 눕혀 놓고 아이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후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눌러준다. 그러면 아이가 다리에 힘을 준다.

【의미】 짹짹짹은 부모와의 교류, 리듬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리근육을 강화시키고 아무런 부담없이 일어서는 과정을 훈련하는 놀이이다.

아이는 서기반사가 있어서 일으켜 세우면 서려고 한다. 일어서려면 등굽이, 목굽이가 발달해야 하고 발바닥이 평발에서 아치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보행기에 태우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

② 물리물리

물리물리 물리물리
물리물리 물리물리

【방법】 ① 아이와 마주 앉아서 아이의 양손을 주먹 쥐듯이 잡고 팔을 안쪽으로 굽힌 후 서로 엇갈리게 돌려준다.

②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동작이므로 아이가 혼자서 물리물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의미】 물레 돌리는 동작과 비슷하여 '물리물리'라고 한다.

③ 장에 가자 질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질가자 질가자 질가자 질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장에 가자
질가자 질가자 질가자 질가자

【방법】 ① 처음에는 아이와 마주 보고 앉아서 아이 손을 잡고 하다가 아이가 일어서면 아이가 선 상태로 하고, 걸을 때는 걸어가면서 손을 앞뒤로 흔들며 노래한다.

② 손을 '장에'에 앞으로, '가자'에 뒤로 흔들며 노래한다.

③ 한 손으로 흔들다가 양손을 다 흔들며 한다.

④ 아이가 원하는 곳을 다 넣어서 불러봄으로써 장소에 대한 아이의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의미】 아이는 처음에 유인원처럼 걷는다. 한 발이 나가고 바로 다른 발이 나가야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아이들은 균형을 잡지 못해서 한 발에 몸의 균형을 다 싣는다. 장에 가자, 질가자는 아이의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놀이이다.

④ 질라래비 훨훨

질라래비 훨훨 질라래비 훨훨
고모네 집에 가자 이모네 집에 가자

【방법】 ① 처음에는 앉은 상태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손목을 잡고 위아래로 흔든다.

② 아이가 서게 되면 마주 본 상태에서 아이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든다.

【의미】 손목 근육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는 놀이이다.

질라래비는 길 앞잡이라는 뜻.

⑤ 등기야

등기 등기 등기야 두등기 등기등 등기야
먹으나 굶으나 등기야 입으나 벗으나 등기야
외 불 듯 가지 불 듯 무럭무럭 잘 자래라
인천바다 조수일 듯 동해바다 물결치듯
외 불 듯 가지 불 듯 잔병없이 잘 자래라

【방법】 ① 어른이 아이를 안고 공중이나 좌우로 흔들거나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좌우로 흔들며 논다.

② 아이가 다리를 쭉 펴고 힘을 주려고 할 때 어른이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

어 주면 아이가 한 발씩 땅에 댈 때마다 다리를 쭉 펴고 힘을 준다.

③ 익숙해지면 두 발씩 땅에 댈다.

【의미】 주변의 우호적 지지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조직되어 있는 놀이이다.

타령장단 한 번 배워볼까? 텅덕기 텅파 열쭉

⑥ 불무불무

불무딱딱 고양이 불 불 불어라
 풀따닥풀따닥 불어라 천석깎이를 불어라
 만석깎이를 불어라 앞뜰에는 논 사고
 뒷뜰에는 밭 사고 풀따닥풀따닥 불어라
 불 불 불어라

【방법】 ① 다리에 힘을 주며 걸으려고 하는 아이를 어른이 양손을 아이 겨드랑이에 넣고 좌우로 흔들며 아이가 발자국을 댈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준다.

② 어른이 아이의 양쪽 다리를 잡고 하기도 한다.

【의미】 발자국을 떼는 모습이 풀무질과 비슷하여 생긴 노래인데 불이 커지듯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바램이 들어있다.

⑦ 고누고누

고누고누
 고누고누

【방법】 ① 아이를 세워서 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아이 손을 잡는다.

② 한 손으로는 누워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손바닥으로 아이의 발을 받치면서 아이를 위로 올려 세운다.

【의미】 아이에게 모험심과 몸의 균형을 길러준다.

⑧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우리 애기 걸음마
 한발짝이 금이나 두발짝이 금이나
 걸음마 걸음마 불무딱딱 와라

【방법】 ①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음마 걸음마'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걷다가 '섬마섬마' 하고 두면 아이가 혼자 선다.

②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두세 발자국 앞에 두고 장단에 맞춰 불러주면 아이가 걸어온다.

③ 아이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애기"하고 박수를 치며 안아준다.

④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걸음마 운동을 한다.

【의미】 아이의 걸음 하나하나에 민족적 장단을 엮는 것이고 그 장단속에서 춤추도록 하는 것이다.

⑨ 섬마섬마

섬마섬마
 섬마섬마

【방법】 ① 걸음마 연습을 시키다가 혼자 세워놓고 노래한다.

10. 말탄 사람 꺼덕

말탄 사람 꺼덕 소탄 사람 꺼덕
 말탄 사람 꺼덕 소탄 사람 꺼덕

【방법】 ① 어른이 엎드려서 아이를 등에 태우고 기어가면서 노래한다.

② 어른이 손과 발을 내밀 때마다 생기는 반동 때문에 아이가 즐거워한다.

【의미】 균형 감각과 모험심을 기르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나중에 죽마놀리로 발전한다.

11. 정가야

정가 정가 정가야 니가 무슨 정가냐
 이씨 집안 정가지 정가 정가 정가야

【방법】 ① 어른이 누워서 두 다리를 모아 90도로 굽힌 후 아이를 발등에 앉힌다.

② 발등에 아이를 태운 후 무릎이 가슴 부근까지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가는 동작을 반복한다.

【의미】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무렵 아이의 성씨를 가르쳐 주면서 사회적 정체성을 가르쳐준다. 마을이나 인류 속에서의 정체성도 가사의 변화를 통해서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험심을 길러준다.

12. 술개미 땀다

술개미 땀다 빼악이 감춰라
 빼악빼악

【방법】 ① 어른이 누워서 두 발에 아이를 태운 후 발을 공중에 들고 "술개미 땀다 빼악이 감춰라" 하면 아이는 "빼악빼악"한다.

13. 방아야

방아야 방아야 이 방아가 뉘 방아냐
 이씨 집안 방아로구나

【방법】 ① 어른이 누워서 아이를 발등에 앉힌 후 두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며 놀아준다.

【의미】 동작이 방아 찧는 동작과 비슷하다.

14. 똥오줌 가리기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치마를 입고
 꼬부랑 땀기를 드리고 꼬부랑 머리를 연어서
 꼬부랑 짝지를 짚고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꼬부랑 똥을 뉘 놓이 꼬부랑 개가 올라와가
 납죽 잡아 묵어뿌고 꼬부랑 짝지로
 꼬부랑 개를 딱 때려주니까 꼬부랑 깨갱 꼬부랑 깨갱

【방법】 ① 똥오줌 가리기 훈련이다. 아이가 똥을 누기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의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똥을 누게 된다.

【의미】 이 노래는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들려주는 자장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두 살때쯤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두엄탕에 가서 똥을 누었는데 두엄탕 옆에는 반드시 대추나무가 있고, 대추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꾸불꾸불하다는 것이다. 그 옆에는 개가 있었다. 아이가 조금 크면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쫓는데 어릴 때는 할머니가 지켜주는데 이런 상황을 이야기로, 노래로 정리한 것이다.

15. 나비 나비 날아 든다

나비나비 날아든다 팔랑팔랑 춤을 춘다

배추밭에 흰나비 장대밭에 노랑나비

쥐방울 덩굴에 꼬리 명주 나비

탱자 나무에 호랑나비

나비나비 날아든다 팔랑팔랑 춤을 춘다

16. 우리 형제

우물가엔 나무형제

하늘에는 별이 형제

우리집엔 나와 언니

나무 형제 열매 맺고

별형제는 빛을 내니

우리 형제 무얼할꼬

함께 배워보는 우리 전래동요 종다~~~

마을수준 교육과정 연구소 연구원

및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연구팀

17.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강원 원주 :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변비가 있을 때)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우리 아기 배는 똥배구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쑥 내려가거라 쑥 내려가거라

할머니 손은 약손 / 울 아기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 울 아기 배는 똥배

쑥쑥 내려가라 / 쑥쑥 내려가라

처음에는 약간의 음을 넣어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문질러 준다. '쑥 내려가거라' 할 때는 정말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도록 강하게 해 준다. 이렇게 어른이 아이의 아픈 배를 문질러 주면 아이들은 신통하게도 얼마 안 있다. '이제는 배 안 아파요'라고 할 때가 많다. 아마도 어른의 이런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심리적인 치료의 효과주는 것 같다.

18. 들강달강 (충북 청원 : 돌 지나서부터)

들강달강 서울 가서 / 밤 한 필을 팔아다가

살강 밑에 묻었더니 / 머리 깎은 새앙취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 다문 한 톨이 남았는데

가마솥에 삶을까 / 웅솥에 삶을까

가마솥에 삶아서 / 조리로 건질까

함박으로 건질까 / 조리로 건져서

껍데길랑 애비주고 / 버내길랑 애미주고

알맹일랑 너하고 나하고 / 둘이 같이 나눠 먹자

할머니가 손주와 마주 앉아 다리를 서로 하나씩 사이에 끼고 손을 마주 잡은 뒤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지방에 따라 '세상달공' '알강달강' 등으로 시작하나 이야기의 줄거리는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아이가 크면 동생과 놀아주며 부른다.

19. 발갈이 가세~ (전남 진도 : 24개월 이후부터)

발갈이 가세~ 발갈이 가세~
 어디만큼 간가 / 당당 멀었네
 이라저라 쟁기질 / 묵은 밭에 따비질
 어디만큼 간가 / 당당 멀었네
 이라저라 쟁기질 / 묵은 밭에 따비질

이 노래는 '강강술래' 중에 나오는 노래이다.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노래인데 노래를 부를 때 아이들끼리 혹은 어른과 아이가 서로 마주 보고 앉아 '들강달강' 때처럼 놀이를 한다. 그런데 '들강달강' 때보다는 빠르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움직인다.

20. 몸의 물터는 소리 (경북 문경 : 24개월부터)

얼개빛 주께 빛나라 / 뽕빛 주께 빛나라
 저 건네는 꺼지고 / 이 건네는 빛나고
 파래 동동 구시래 동동 / 파래 동동 구시래 동동
 얼개빛 주께 빛나라 / 뽕빛 주께 빛나라
 저 건네는 꺼지고 / 이 건네는 빛나고
 파래 동동 구시래 동동 / 파래 동동 구시래 동동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나 뒤 몸에 묻은 물을 털며 부르는 노래이다. 통통 뛰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수건으로 물을 닦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파래 동동 구시래 동동'에서는 귀에 들어간 물을 빼주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하고 한 손으로 귀를 막았다 뚫다 해 준다.

21. 말꼬리 따기 (경북 경산 : 6-7세 이상)

저 건너 김영감 / 나무하러 가세~
 등 굽어 못가네 / 등굽으면 질매가지
 질매가지면 네 구멍 / 네구멍이면 도사리
 독사리면 잠지 / 잠으면 까마구
 까마구면 찌지지 / 찌지면 무당이지
 무당이면 높지 / 높으면 대장이지
 대장이면 뛰지 / 뛰면 벼룩이지
 벼룩이면 빨지 / 빨으면 대추지
 대추면 달지 / 달면 엿이지
 엿이면 불지 / 불으면 첩상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꼬리 잇기' 놀이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놀이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하는 방법보다는 예전의 방법이 훨씬 재미있는 것 같다. 위의 노랫말을 요즘에 맞게 바꾸어서 다양하게 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놀이 방법은 등그렇게 앉아 처음 시작을 누군가 하면 그 옆 사람이 그 말꼬리를 받아 하면 된다. 두 번째 사람의 말꼬리는 그 옆 사람이 이어가면 된다.

예) 보육교사 함께 모여 전래동요 배워보세~

전래동요면 / 들강달강이지
 들강달강이면 / 머리감은 새앙쥐지~
 새앙쥐면 / 고양이
 고양이면 / 할퀴지
 할퀴면 / 얼굴에 상처나서 아프지
 아프면 / 병원가지.....

22. 어깨동무 씨동무 (4세 이상)

동무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동무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먼저 두 명씩 짝이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노래의 맨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데서 만나는 다른 팀의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를 한다. 진 팀은 이긴 팀에 붙어 이제는 4명이 한 팀이 되어 다시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다. 또 노래가 끝나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팀과 '가위바위보'를 한다. 진 팀은 이긴 팀에 붙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놀이를 진행해 가다 마지막 두 팀이 남으면 '꼬리따기'를 해도 되고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해도 재미있다.

23. 동아따기 (6-7세 이상)

할머니 : (허리를 구부리고) 꼬부랑깽 꼬부랑깽 동아 따라 왔다.
 수 박 : 이제 씨뿌렸다. 널모레 와라
 할머니 : 널모레 당당 널모레 당당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처음과 같이 다시 동아 따라 간다) 꼬부랑깽 꼬부랑깽 동아 따라 왔다.
 수 박 : 이제 싹 났다. 널모레 와라
 할머니 : 널모레 당당 널모레 당당.....

'동아'는 오이, 수박, 참외 등을 말한다. 이 놀이를 시작할 때 먼저 할머니와 동아들을 정한다. 동아들은 한 줄로 길게 앉아 앞사람의 허리를 잡는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며 동아에게 온다. 동아들은 할머니가 동아를 따가지 못하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댈다. 이런 과정에서 생물의 성장 과정 등을 알게 된다. 동아가 '다 익었다'하게 되면 할머니는 맨 뒤의 동아를 잡아당겨 떼어 낸다. 떼어진 동아는 할머니 뒤로 가서 할머니의 허리를 잡고 할머니와 함께 다른 동아를 따기 위해 함께 움직인다.

24. 바늘귀 꿰기 (전남 진도 : 4세 이상)

바늘귀 꿰세~ 바늘귀 꿰세~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일새 동방에 제갈연 붉은 실이나 꿰자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이새 남방에 연할연 파랑실이나 꿰자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삼새 서방에 연할연 검은실이나 꿰자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사새 북방에 연할연 혼실이나 꿰자
 오색 당사실로 바늘귀나 꿰자
 꿰자 꿰자 바늘귀나 꿰자

이 노래는 '강강술래' 중에 나오는 노래이다. 놀이 방법은 먼저 한 사람이 바늘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실을 한다. 역할은 돌아가면서 바뀌게 된다. 바늘인 사람 뒤로 실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한 줄로 쭉 선다. 노래가 시작되면 바늘은 다양한 몸짓을 하며 돌아다닌다. 실들은 이런 바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쫓아다닌다.

25. 손치기 . 발치기 (전남 진도 : 4세 이상)

손치기 하세~ 손치기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함박쪽박 시집 가 종갓애기 나도 가
 어린것이 어찌 가 웅글동글 잘도 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두 사람씩 마주보고 선다.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는 박수를 치면서 왼발 오른발을 옆으로 비껴가며 앞으로 내 논다.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는 손은 허리에 두고 발만 왼발 오른발 옆으로 비껴가며 앞으로 내 논다. '함박쪽박.....웅글동글 잘도 가'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뒤 한 번씩 앞사람 쪽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고 갔다가 제자리로 온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한다.

서울보육교사회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지부로 1998년 12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본회는 서울지역 보육교사들의 모임으로 아동의 인권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권리의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

보육교사의 자주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

올바른 교육관 확립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의 연구와 실천, 보급 활동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월 소식지("야!찾았다") 발간
2. 수도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연수
 99년도-<우리 문화속에서 찾는 유아교육>;전래동요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실제, 전래놀이 실제등
 2000년도-<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옛 노래>; 전통육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래노래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프로그램
3. 다양한 소모임 활동
 옛이야기 연구 모임 - 자료집 <재미있는 옛 이야기 1>, <재미있는~ 2> 발간
 색종이 접기 모임
 나들이(견학) 연구 모임
 미술 모임 - 현재 아동미술 전문가와 함께 진행 중
 영유아 연령별 관찰 연구 모임 - 준비중
4. 회원 교육
 부모상담의 이론과 실제 - 자료집 <현장교사가 준비한 부모상담 실제> 발간
 실무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교육
 교사의 자기진단
5. 회원 나들이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관람
 북한산 등반등
6. 그 밖에도 다양한 지부, 지회 활동과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육 프로그램등에 참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문의: ☎ 2275-8505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E-mail> NAABY@chollian.net ◆ 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인천지부는 ☺

☺ 미모와 끼로 뭉친 인천지부는 정회원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취미와 교육 욕구를 소모임에 담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 신나는 풍물모임, 재미있는 박물관 모임, 아기자기한 그림책 모임이 있습니다.

☺ 월 1회 회원의 날은 전체 회원이 모여 주제가 있는 만남을 가지며

☺ 생일축하잔치는 회원개인이 선물과 음식을 마련하여 상다리가 부러진답니다.

☺ 지역보육교사들의 공동체 건설을 향하여!!!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장 최화영 017-326-7004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 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 매월 1만원+@ (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회원이 되시면 ■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의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

- 자료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지부, 지회로 연결→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름

■ 송금구좌 :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이런 일을 합니다|

연구하는 교사 · 실천하는 교사 ·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 제도 연구, 개발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 제도 연구, 개발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천리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전송 02-2275-8506/ 천리안 KDIRC